

전남, 10년간 수출증가율 전국 1위

산업연구원 분석, 연평균 18.2% 기록... 광주·전북은 공동 4위

최근 10년간 전남지역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전북도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했다.

산업연구원 변창욱 연구위원은 27일 발간한 '우리나라 지역별 수출 현황과 특성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 2001~2010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전남이 18.2%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강원(16.2%)과 대전(15.5%)이 뒤를 이었으며 광주와 전북은 13.8%로 4위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울산, 경남, 충남 등 4개 시·도의 수출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절반을 넘는 58%

를 차지했다. 경기지역의 수출이 857억 달러로 전체의 18.4%였으며, 울산 714억 달러(15.3%), 경남지역 584억 달러(12.5%), 충남지역 541억 달러(11.6%) 등이었다.

최근 10년간 서울의 수출 비중은 18.5%에서 9.7%로 낮아졌으며, 경기 지역의 비중 역시 22.1%에서 18.4%로 낮아진 반면 울산(11.6%→15.3%), 충남(9.9%→11.6%), 경남(9.7%→12.5%) 등은 비중이 높아졌다.

항공·정밀기기·전자부품·의약·통신기기 등 첨단기술 품목의 수출 비중은 충남(69.3%), 경북(59.2%), 경기(57.8%) 등의 순으로 높았다.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첨단기술

품목의 비중은 39.7%에서 33.2%로 하락한 반면 화학·기계류·자동차 등 중고위 기술 품목의 비중은 16.5%에서 23.3%로, 석유제품·금속·철강·고무플라스틱·조선 등 중저위 기술 품목 비중은 19.6%에서 29.0%로 높아졌다.

수출 품목의 집중도는 부산·인천·전북 등은 상승한 반면, 대구·대전 등은 낮아져 수출 품목이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과 인천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인 2009년 수출 감소율(전년대비)이 각각 26.2%, 25.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수출품목 구성에도 기인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수출의 지역 내 생산 파급효과는

울산이, 지역 간 파급효과는 전북이 각각 가장 높았다.

울산의 경우 지역 내 생산액 중 44.5%가 해외 수출 수요를 통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전북의 수출 수요에 따른 전국 생산액 중 전북 이외 지역의 생산 비중이 46.9%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지역별로 기술 수준이 고도화된 상품 수출 비중을 확대해야 하며 경쟁력을 갖춘 수출 상품을 특화시키는 동시에 지역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수출 품목의 다양성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보졸레' 예약판매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지하 1층 와인 전문매장에서 다음달 16일까지 프랑스산 햇포도 주 '루이자도 보졸레 빌라쥐프리외르'를 예약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예약 구매고객에게는 정상이보다 30%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할인가는 2만9000원이다.

내년 건설시장 공공 '하락'·민간 '상승'

한국건설경영협회 전망

내년도 국내 건설시장은 공공 부문이 위축되고 민간 부문의 회복세에 힘입어 소폭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7일 한국건설경영협회에 따르면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전날 협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2012년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대응 발표회'에서 내년 국내 건설 수주

액을 올해보다 3.4% 증가한 108조 3000억원으로 예측했다.

부문별로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과 4대강 사업의 완료로 공공 부문 수주액이 올해보다 7.68% 감소한 27조1천억원에 그치는 반면 민간 부문 수주액은 7.70% 상승한 81조2천억원에 기록할 것이라고 김 소장은 내다봤다.

민간 부문의 회복 전망은 지방의 아파트 분양 열기가 수도권을 향해

점진적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예상은 근거로 한다.

김 소장은 "아파트 입주량 감소와 전세가격 상승에 따라 지방의 분양 열기가 수도권으로 점차 번지면서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며 주거 분야의 수주액이 올해보다 9.2% 증가한 37조3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공 부문은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철도와 도로 등 인프라 공사의 발주로 하락폭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침체, 금융시장의 불안 등 새로운 위험 요인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어 내년 국내의 건설시장에서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김 소장은 강조했다.

연협뉴스

청년인턴 1만2246명 채용

기획재정부 9월까지

기획재정부는 285개 공공기관의 청년인턴제 운영실적을 9월 기준으로 점검한 결과 청년인턴으로 1만 2246명을 채용해 올해 연간계획(9532명)을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들이 채용한 청년인턴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0% (6122명)였으며 비수도권 인제 51% (6244명), 장애인 2.1% (255명), 국가 유공자 1.6% (197명) 등으로 집계됐다.

또 퇴사한 인턴은 5747명이며 이 가운데 2452명(42.7%)이 취업에 성공했다. 우수인턴 추천이나 가정 부여, 일부 전형 면제 등의 지원을 받아

해당 기관에 취업한 청년인턴은 1105명으로 퇴사자의 19.2%를 차지했으며 1347명(23.5%)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취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사의 청년인턴을 가장 많이 채용한 기관은 한전KPS(177명)였으며 이어 한국수력원자력(137명), 도로공사(108명), 대한지적공사(86명), 한전KDN(53명), 주택관리공단(34명), 가스안전공사(27명) 등의 순이었다.

재정부는 청년인턴 경험자의 취업률을 높이고 고졸자의 청년인턴 채용 비율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2년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연협뉴스

▲ 코스피지수	1922.04 (+27.73)
▼ 코스닥지수	497.04 (-0.47)
▲ 금리 (국고채 3년)	3.53% (+0.03)
▼ 원·달러 환율	1115.20원 (-17.1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11월 경기 더 나빠질 것"

중소기업들 전망...업황전망 건강도지수 하락

중소기업들은 다음 달 경기가 이달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중소기업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를 조사한 결과 11월 지수는 92.4로 전달보다 3.9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 지수는 지난 8월 91.6을 기록한 이후 계속 상승하다 3개월 만에 떨어졌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 우려가 경기 전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소기업(94.6→90.1)과 중기업(99.9→97.3) 모두 지수

가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목재 및 나무제품(98.6→83.8), 기타운송장비(95.5→86.4), 가구(79.2→70.4) 등에서 하락 폭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음료(97.6→104.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99.0→104.3) 등에서는 지수가 상승했다.

이번 달 중소기업의 최대 경영 애로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꼽은 업체가 5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수부진'(51.9%), '과당경쟁'(32.3%), '판매대금 회수지연'(31.4%), '인건비 상승'(29.3%), 등의 응답이 나왔다.

연협뉴스

서비스 수출 일자리 창출 제조업의 2.3배

한국무역협회 보고서

운송, 여행, 의료 등 서비스를 수출하면서 생기는 일자리가 같은 금액의 상품을 수출할 때보다 2.3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7일 내놓은 '서비스 수출의 국민경제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도 827억달러의 서비스 수출에 따른 취업유발인원은 162만2000명으로

취업유발률(취업유발인원/수출액)은 1.96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품수출(4664억달러)에 따른 취업유발률 0.86(취업유발효과 400만6000명)의 2.28배 수준이다. 작년 총 취업자 2383만명 가운데 6.8%가 서비스 수출로 일자리를 얻었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지난해 전체 경제성장률 6.2% 중 서비스 수출에 따른 경제성장률은 0.3%포인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협뉴스

박삼구 금호회장·리커창 중국 부총리

"교류 활성화·경제협력 노력"



박삼구(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 한중우호협회장이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리커창 중국 상무부총리와 만나 양국간 교류 활성화와 경제협력 방안 등에 대해 환담하고 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부총리를 만나 양국 교류 활성화와 경제협력 방안 등에 대해 환담했다.

한중우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 회장은 한중우호협회, 한중 친선협회 등 중국과 관련한 국내 6개 단체장의 공동접견 형식으로 마련한 이 자리에서 "다양한 교

류 사업을 통해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우호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이세기 한중친선협회 회장, 김한규 21C한중교류협회 회장, 이영일 한중문화협회 총재, 구천서 한중경제협회 회장, 김용덕 한중교류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연협뉴스

김태랑 자전적 에세이

우리는 M을 옮기려 했다

정치 지망생들과 후학들에게 들려주는 의리와 독심의 우공이산 이야기

김태랑 지음 | 356쪽 | 12,000원

우리는 M을 옮기려 했다

"이 책을 읽고 있노라면 온몸을 감고 휘도는 강력한 기를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도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걸어온 파란만장한 일대기가 너무나 진솔하게 서술되어 있다."

성낙인 서울대 법대 헌법학 교수

경남 창녕 출신, 부산수산대학 졸업, 국립부경대학교 명예 경제학 박사

신민당 입당(1971년), 김대중총재 정치특보 제15대 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열린우리당 인사위원, 국회의원사무총장 역임

영남인으로 동교동계에서 40여 년간 DJ와 한길을 걸어온 외길 인생 민주당의 산 역사 김태랑 총장이 전하는 신의와 열정의 정치 담론

김태랑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역대 대통령들이 어떻게 내린 28가지 결정, 그 결정들은 역사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토머스 J. 크라우프웰, 에드윈 키에스터 지음 | 임자현 옮김 | 528쪽 | 18,000원

(주)이오북스 전화 02)3666-2525 www.eobooks.com